



덕안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초등/소년부**

초등부

소년부

약속

1. 예배시간 **10분 전**에 와요.
2. 예배시간 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3. 이 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요.
4.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5. 예배를 드린 후 **주변을 정리**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위드 - 이 책은 매 월의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초등/소년부 교육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Memory
Time

Memory Time
반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Sweet
Time

Sweet Time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하여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GOD'S
TIME

God's Time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입니다.

Morning
Time

Morning Time
아침 시간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bed
time

Bed Time - 잠자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 Morning Time과 Bed Time은 매 월 마지막 주에만 제공됩니다.

FUN FUN
PLAY

FUN FUN PLAY
친구들이 재미있게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교육 내용	04
첫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0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07
어린이 QT God's Time	08
둘째 주	
분반모임 Memory time	1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19
어린이 QT God's Time	20
English Bible Study	28
셋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34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35
어린이 QT God's Time	36
넷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4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47
어린이 QT God's Time	48
다섯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5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59
어린이 QT God's Time	60
*아침에 나누는 Morning Time	68
*잠자기 전 나누는 Bed Time	69
편편 플레이	
다른그림찾기	70
미로찾기	71
워드포토	72
워드큐티스티커	75
교육활동	77



5월 교육내용
다시 가정이라는 꿈을 꾸라



암송
구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 창세기 1장 27절 -

♥첫째주♥
“어린이는
기적이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다
(창세기 21장 6절)
* 어린이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예요.

♥둘째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1장 13절)
*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해요.

♥셋째주♥
“아이를
일으켜 붙들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1장 18절)
*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해요.

♥넷째주♥
“계승된 축복”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 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창세기 21장 31절)
* 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수 있어요

♥다섯째주♥
“지음 받은 은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 나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졌어요.

실천
내용

1. 하나님의 모습대로 나와 가족을 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2.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 받은 나와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도와주기

5월 첫째주
2022년 5월 1일~7일



Memory Time



어린이는 기적이다

첫째주

♥ 주제 : 다시 가정이라는 꿈을 꾸라

♥ 암송구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창세기 21장 6절

♥오늘의 주제 : 어린이는 기적이다 ▷창세기 21:1-7

어린이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예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1 여호와께서 돌보시고, 말씀하신대로 행하신 사람은 누구인가요? (1절)
- 2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3절)
- 3 이삭이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행했나요? (4절)
- 4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나요? (5절)
- 5 사라는 이삭을 낳고 웃었어요. 사라의 웃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6절)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친구들은 무언가를 오랫동안 기다려본 적이 있나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다리는 것은 힘들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오랫동안 자녀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사라가 90살이 될 때까지도 자녀가 없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라는 믿지 못하고 웃었어요. (창18:12) 아마도 자신이 늙어서 아기를 낳는 것은 불가능하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불가능한 기적과 같은 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거예요. 사라는 이제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적과 같은 자녀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기쁨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을 이루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요!

토론하기

Q1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본 적이 있나요? 약속을 기다릴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함께 나누어보아요.

Pray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약속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잘 기다리게 도와주세요.

GOD'S TIME 1

첫째주

날짜: 2022.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요한복음 8:1-11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2.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3.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 놓고,
4.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5.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6.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7.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8.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9.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10.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11.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구실 : 핑계거리

정죄 : 죄가 있다고

단정함

with
관찰

1. 유대 사람들은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 고발하니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O’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가요? (7절)
- ① 죄 ② 돌 ③ 화 ④ 집

2.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우세요. (11절)

“... 나도 너를 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with
생각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질문하였어요. 예수님이 여자를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인 ‘사랑’의 정신에 어긋나고, 용서하고 놓아주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니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모두 그 자리를 떠났어요.

with
결심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할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심판할 자격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자를 심판하지 않고,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유대 종교지도자들처럼 나의 모습은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죄나 실수만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지적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과 포용으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기로 결단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예수님처럼 사랑과 포용의 마음으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GOD'S TIME 2 첫째주

날짜 : 2022.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요한복음 8:12-20 “나는 세상의 빛이다.”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2.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13.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14.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15.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16.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17.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18.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19.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20.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헌금궤 : 헌금함

with
관찰

1.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12절)

세상의

2.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이유는 아직 '무엇'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나요?. (20절)

그의

with
생각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속에서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 자신에 대해 내가 증언하고 있으니 그 증언이 참되지 않다고 비판하였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에 두 사람이 증언하면 옳다고 나와 있는데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with
결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마 5:14).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나도 '세상의 빛'이에요. 작은 불빛 하나만 있어도 깜깜한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작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행할 때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게 될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가는 내가 되기로 결단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해주세요.

나의 기도:

GOD'S TIME 3 첫째주

날짜: 2022.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요한복음 8:21-30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21.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22.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23.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24.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25.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29. 그리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27.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28.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9.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30.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자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음

with
관찰

1.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우세요. (23절)

“너희는 에서 왔고, 나는 에서 왔다.

너희는 이 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2. 28절의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는 어떤 때인가요? With 생각과 With 결심을 읽고 답을 맞춰보세요. (28절)

- 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 ② 예수님이 높은 지위를 갖게 되실 때
③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④ 예수님이 하늘로 날아가실 때

with
생각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자신에 대해 말씀해 주셨지만 유대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자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엉뚱한 해석을 하기도 하였지요.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28절에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지요.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야 이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with
결심

유대 사람들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세주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하였지요. 마음으로 믿지 않으니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예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저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

GOD'S TIME 4 첫째주

날짜: 2022.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요한복음 8:31-47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31.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32.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33.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34.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35. 좋은 언체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37.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38.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39.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यो."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40.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말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41.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인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생략)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진리: 참된 이치,
 하나님의 복음

with
관찰

1. “너희는 ○○를 알게 될 것이며, ○○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인가요? (32절)

- ① 감사 ② 진리 ③ 제자 ④ 예배

2. 죄를 짓는 사람은 다 ‘무엇’의 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34절)



with
생각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말을 믿고 따라 살면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누구의 종도 된 적이 없다고 하었어요.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 받아 죄로부터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with
결심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들 역시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구원은 나의 행위로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주어져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며 죄를 따르던 삶으로부터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로 결단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예수님을 믿으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 창세기 1장 27절 -



5월 둘째주
2022년 5월 8일~14일



Memory Time



하나님의 뜻을 따라

둘째주

♥ 주제 : 다시 가정이라는 꿈을 꾸라

♥ 암송구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 창세기 21장 13절

♥ 오늘의 주제 : 하나님의 뜻을 따라 ▷ 창세기 21:8-13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베풀었나요? (8절)
- ② 사라는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했나요? (9절)
- ③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는 사라의 말에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졌나요? (11절)
- ④ 하나님께서는 여종의 아들을 통해 무엇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나요? (13절)
- 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종과 여종의 아들을 다른 곳으로 보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유롭게 나누어 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랜기간 자녀가 없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자녀를 낳고 집안을 이어나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기에,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지요. 시간이 흐르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보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명의 아들이 생긴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괴롭히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되었어요. 화가 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근심이 생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12-13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되었답니다.

친구들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해본 적 있나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향해 뜻을 품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주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걸음씩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해요!

토론하기

Q1.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본 적 있나요? 함께 나누어보세요.

Pray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해주세요.

GOD'S TIME 1 둘째주

날짜 : 2022.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요한복음 8:48-59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48.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 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49.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50.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 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51.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52.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니,
53.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또 예언자들도 다 죽었소.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오?"
54.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55.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56.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 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57.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쉰도 안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5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59.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모욕 :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놀리는 행동

with
관찰

1.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우세요. (54절)

“...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시다.

너희가 너희의 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다.”

2. 예수님께서서는 유대 사람들에게 ‘누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고 말씀 하셨나요? (58절)

- ① 아브라함 ② 이삭 ③ 야곱 ④ 요셉

with
생각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들렸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자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하시며,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가 예수님의 날을 보고 기뻐했다고 하자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오해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어요.

with
결심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50살도 안된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냐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요.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지 않았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고 믿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해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원자로 인정 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둘째주

날짜 : 2022.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요한복음 9:1-12 "눈 먼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2.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3.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4.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6.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7.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8.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9.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10.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11.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12.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물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개다 : 가루에 물이나 기름따위를 넣어 섞이도록 하는 것

with
관찰

1. 예수님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고 그렇게 태어난 것이 죄 때문이 아닌 '누가'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라고 하였나요? (3절)

- ① 부모
- ② 자신
- ③ 하나님
- ④ 마귀

2. 눈먼 사람에게 어디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나요? (7절)

with
생각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이 사람은 누구의 죄로 그렇게 되었는지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침에 진흙을 개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에 바르신 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씻고 그 즉시 눈이 보이게 되었어요.

with
결심

당시 유대 사람들은 큰 병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구약성경에서도 모든 질병을 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병의 진정한 원인을 하나님께서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 먼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고 질문해 보아야 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바꾸며 이겨내는 내가 되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둘째주

날짜 : 2022.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요한복음 9:13-34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신 분.”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6.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생략)

18.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19.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20.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21.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 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22.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생략)

30.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31.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32. 니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33. 그가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34.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표징 : 어떤 것과 다른 것

을 드러내 보이는

뚜렷한 점

결의 : 의논하여 결정함

with
관찰

1. 눈먼 사람의 부모는 왜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기를 꺼려했나요? (21-22절)
 - ① 어떻게 된 일인지 도무지 몰라서 ② 관심이 없어서
 - ③ 대답하기 귀찮아서 ④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2. 눈먼 사람은 유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말하였나요? (33절)

□ □ □

with
생각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부모를 불러 정말 날 때부터 보이지 않았는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물었지요. 그의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회당에서 내쫓기로 한 것을 알고 무서워서 “모르겠다”고 대답하였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번엔 눈이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을 불러 다시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였어요.

with
결심

부모는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 눈을 뜨게 된 사람은 달랐어요.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회당에서 쫓겨나 갖은 핍박을 겪게 될 것을 알았지만 담대하게 고백하였지요. 그는 자신이 치유 받은 것을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그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두려움도 담대히 이겨내는 사람이예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날짜 : 2022.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요한복음 9:35-41 “보지 못하는 사람들.”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35.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36.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37.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나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38.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39.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40.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오?"
4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예수님은 이 세상을 ‘○○’하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인가요? (39절)
- ① 설교 ② 심판 ③ 예배 ④ 분쟁

2.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우세요. (41절)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가 그대로 남아있다.”

with
생각

유대 사람들은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자 그를 내쫓았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물어 보셨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음을 말씀하시며,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with
결심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은 보지 못한 채 남을 판단하는데 열심이고, 심지어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심을 보지 못한 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내쫓기 때문이었지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삶을 산다 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앞이 보이지 않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마음의 눈을 떠서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가 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마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 :

ENGLISH BIBLE STUDY



사도행전 16:25-34 (새번역성경) / Acts 16:25-34 (NIRV)

Resilience - getting back up when something gets you down.

탄성력 - 어려움으로부터 다시 회복하는 것

24.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차꼬를 단단히 채웠다.
25. 한밤중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26. 그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차꼬가 풀렸다.
27.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28. 그 때에 바울이 큰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29.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30.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31.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32.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33.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34.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Acts 16:24-34 (NIRV)

24. When he received these orders, he put Paul and Silas deep inside the prison. He fastened their feet so they couldn't get away.
25. About midnight Paul and Silas were praying. They were also singing hymns to God. The other prisoners were listening to them.
26. Suddenly there was a powerful earthquake. It shook the prison from top to bottom. All at once the prison doors flew open. Everyone's chains came loose.
27. The jailer woke up. He saw that the prison doors were open. He pulled out his sword and was going to kill himself. He thought the prisoners had escaped.
28. "Don't harm yourself!" Paul shouted. "We are all here!"
29. The jailer called out for some lights. He rushed in, shaking with fear. He fell down in front of Paul and Silas.
30. Then he brought them out. He asked, "Sirs, what must I do to be saved?"
31. They replied, "Believe in the Lord Jesus. Then you and everyone living in your house will be saved."
32. They spoke the word of the Lord to him. They also spoke to all the others in his house.
33. At that hour of the night, the jailer took Paul and Silas and washed their wounds. Right away he and everyone who lived with him were baptized.
34. The jailer brought them into his house. He set a meal in front of them. He and everyone who lived with him were filled with joy. They had become believers in God.

Vocabulary

Paul - (사도) 바울

hymn - 찬양(찬송가)

Silas - 실라

prisoner - 죄수

praying - 기도

Observation

Write the missing letters.

25. About midnight P___ and S_____ were p_____. They were also singing h_____ to God. The other p_____ were listening to them.

ENGLISH BIBLE STUDY



Interpretation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슬퍼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차고 있던 수갑과 차꼬가 풀렸어요.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놀라자 바울과 실라는 간수를 진정시키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려와 자신이 들은 복음을 가족들에게 전해주었어요. 복음을 들은 간수와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Application

We feel tired or burnt out after finishing a race or exercise. Also, if something bad happens, we get stressed or feel sad.

Paul and Silas were caught, beaten, and imprisoned as they shared the gospel to others. Even though they were tired and exhausted, they prayed and praised God together. And something amazing happened. Suddenly, there was an earthquake. The prison's doors were opened and the prisoners' chains came loose. The jailer was so surprised. Paul and Silas calmed him down and shared gospel.

Although Paul and Silas were in a bad situation, they regained power as they prayed and praised to God together. The shocked jailer was calmed and gained strength as he heard the gospel.

Dear friends! God gives us power and strength to get back up. Let's remember God who brings us back to strength and stays with us. Bless and love you!

달리거나 격한 운동을 하고나면 우리 몸은 어떤가요? 지치고 피곤을 느껴요. 또 우리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슬퍼하죠. 몸이나 마음이 힘든 일을 하거나 경험하면 우리는 지치고 힘을 잃게 되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군인들에게 붙잡혀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슬퍼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며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수갑과 차꼬가 풀렸어요. 이것을 본 간수는 깜짝 놀랐어요. 바울과 실라는 놀란 간수를 진정시키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다시 힘을 냈어요. 죄수들이 모두 풀려난 것을 보고 놀란 간수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다시 힘을 얻고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항상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Let's memorize

Let's memorize Acts 16:31 NIRV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외워보도록 해요

31. They replied, "Believe in the Lord Jesus.

Then you and everyone living in your house will be saved."

- Acts 16:31. NIRV -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 창세기 1장 27절 -



5월 셋째주
2022년 5월 15일~21일



Memory Time



아이를 일으켜 붙들라

셋째주

♥ 주제 : 다시 가정이라는 꿈을 꾸라

♥ 암송구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1:18

♥ 오늘의 주제 아이를 일으켜 붙들라 ▷창세기 21:14-21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해요.

★ 말씀나눔

- 1 아브라함이 하갈과 아이에게 준 것은 무엇이었나요? (14절)
- 2 하갈이 우는 것을 보고 누가 찾아왔나요?(17절)
- 3 아이는 자라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었나요? (20절)

★ 교육활동 - “함께하시는 하나님 종이 연극”

준비물 : 활동지, 가위, 칼, 색연필

- 1 활동지를 실선을 따라 오려주세요.
- 2 배경에 있는 점선을 따라 가위 또는 칼로 잘라주세요.
- 3 색연필로 배경의 하늘과 광야를 꾸며주세요.
- 4 '이스마엘과 하갈'의 손잡이를 배경의 점선 사이로 넣어주세요.
- 5 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우물까지 천천히 이동해주세요.
(본문 말씀 내용으로 이스마엘과 하갈이 어떤 말을 했는지 생각하며 말해주세요)
- 6 우물에 도착한 '이스마엘과 하갈' 옆에 '하나님'을 끼워 넣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스마엘과 하갈을 이동시켜주세요.
- 7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가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하나님께서서는 이삭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떠날도록 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라는 광야를 헤매고 있었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가져왔던 물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물을 찾지 못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갈은 이스마엘이 죽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 조금 거리를 두고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는소리를 듣고 천사를 보내 주셨어요.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단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붙잡으렴. 그가 큰 나라를 이루도록 만들어 줄게.”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고 가족부대에 물을 채울 수 있게 하셨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마엘이 자라는 동안 늘 함께해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지켜주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용기를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해요.

토론하기

- Q1. 우리 가정이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나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을까요? 함께 나누어 보세요.

Pray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

GOD'S TIME 1 셋째주

날짜 : 2022.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요한복음 10:1-10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2.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3.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4.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5.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6.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7.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8.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9.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풀을 얻을 것이다.
10.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풀 : 말이나 소에게 먹이는 풀

with
관찰

1.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우세요. (7절)

“나는 이 드나드는 이다.”

2.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우세요. (9절)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을 얻고, 드나들면서 을 얻을 것이다.”

with
생각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자신을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문을 통과해 우리로 들어가 그 안에 있어야만 늑대나, 무서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오지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세상의 많은 위협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with
결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넘치게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은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되는 구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 행복을 말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기쁨과 복이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길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기쁨과 복이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GOD'S TIME 2 셋째주

날짜 : 2022.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요한복음 10:11-21 “나는 선한 목자이다.”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1.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12. **삿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 버린다.
13. 그는 삿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14.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15.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16. 나에게서는 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17.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18.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19.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20.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21.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삿꾼 : 대가를 받고 일하는 사람, 대가만 탐내는 성실하지 못한 목자



with
관찰

1.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우세요. (11절)

“나는 이다.

선한 목자는 들을 위하여 자기 을 버린다.”

with
생각

예수님은 이어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받고 양들을 돌보는
삷꾼은 자신이 위험에 처하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버리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
을 사랑해서 위험에 처하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돌보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with
결심

양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노력해야 해요. 나를 부르시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길 때 예수
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의 목자되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셋째주

날짜: 2022.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요한복음 10:22-30 “나와 아버지는 하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22.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23.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24. 그 때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25.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26.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27.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28.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29.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경내: 성전의 경계의 안

주랑: 기둥만 나란히 서있고 벽이 없는 복도

만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with
관찰

1.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시냐고 묻자 예수님께서 '무엇'이 예수님을 증언해 준다고 하였나요? (25절)

- 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 ② 예수님의 능력
- ③ 예수님의 제자들 ④ 내 양들

2.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30절)

with
생각

성전 봉헌절이 되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였어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신지 분명하게 말해달라고 하였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너희에게 말하였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지만 너희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with
결심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보여주라고 주장하였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는 자신들의 어리석음은 생각하지 못했지요. 믿지 못하는 것은 믿을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삶에 충분히 보여주고 계시는 증거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지혜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깨닫고 알아 가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셋째주

날짜: 2022.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요한복음 10:31-42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31. 이 때에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3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 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33.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오.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3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35.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36. 또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37.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38.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39.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다.
40. 예수께서 다시 요단 강 건너 쪽,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41.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42. 그 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모독: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 욕되게 함

with
관찰

1.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였다고 말하며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어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가요? (33절)

- ① 찬양 ② 경배 ③ 예배 ④ 모독

2. 많은 사람들은 ‘누가’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 모두 참되다고 인정하였나요? (41절)

with
생각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하시니,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아버지가 거룩하게 하여서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독이 아니라고 하시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믿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심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with
결심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나쁜 마음때문이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의 첫 번째 일이에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 :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 창세기 1장 27절 -



5월 넷째주
2022년 5월 22일~28일



Memory Time



계승된 축복

넷째주

♥ 주제 : 다시 가정이라는 꿈을 꾸라

♥ 암송구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 창세기 21:31

♥ 오늘의 주제 계승된 축복 ▷ 창세기 21:22-34

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수 있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22절)
- ②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을 때, 무엇을 따로 놓았나요? (28절)
- ③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나요? (31절)

★ 교육 활동 - “믿음의 가정 규칙 세우기”

준비물 - 활동지, 필기도구

- ① 활동지와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 ② 가정에서 함께 상의한 후,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규칙을 적어보아요.
- ③ 가족 구성원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규칙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④ 그날의 규칙을 실천했다면 체크박스에 ‘V’로 표시해 주세요!
- ⑤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규칙을 잘 지키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넛째주

친구들, 누군가의 모습을 닮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우리는 누군가의 모습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을 따라하게 되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어른들의 신앙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그 모습을 따라하게 돼요.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과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여 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고, 가는 길에 브엘세바에서 그랄왕 아비멜렉과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길 원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함으로 예배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삭과 야곱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과 야곱에게 전해진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이어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가족들과 이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토론하기

Q1. 내가 본받고 싶었던 성경 인물은 누구인가요? 이유를 함께 나누어 보아요!

Pray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GOD'S TIME 1

넷째주

날짜: 2022.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요한복음 11:1-5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아에 사는 나사로였다.
2.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다.
3.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4.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5.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향유: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귀한 기름

with
관찰

1.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절)

- ① 나삼로 ② 나사로 ③ 나오로 ④ 나육로

2.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고 말씀하셨나요? (4절)

□ □ □

with
생각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발에 귀한 기름을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아 주었던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큰 병에 들어 죽어가게 되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고쳐주시기를 구하였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with
결심

사람들은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을까봐 걱정하며 슬퍼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고, 결국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 두려워 걱정하게 되고 슬픈 마음이 들 때, 예수님께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GOD'S TIME 2

넷째주

날짜: 2022.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요한복음 11:6-16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삶.”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6.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7.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8.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9.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열두 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도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10. 그러나 밤에 걸어도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11.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12.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낮게 될 것입니다."
13.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쉬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14. 이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15.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 된 일임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16.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with
관찰

1.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얼마나 더 계시던 곳에 머무르셨나요? (6절)

- ① 하루 ② 이틀 ③ 사흘 ④ 나흘

2.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with
생각

예수님은 나사로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사람들의 동네로 다시 가자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햇빛이 있어서 걸려 넘어지지 않지만, 밤에 걸어 다니면 빛이 없어서 걸려서 넘어진다.” 그리고 이어서 나사로에게 가자고 하시며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with
결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낮’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서 활동하실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간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예요. 밤이 되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시간이 끝나게 되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걸려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날마다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넷째주

날짜: 2022.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요한복음 11:17-29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7.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18.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19.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20.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21.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22.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23.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24.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25.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26.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27.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28.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29.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오(5) 리: 약 2Km의 거리

with
관찰

1.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지 며칠이 되었나요? (17절)

- ① 하루 ② 이틀 ③ 사흘 ④ 나흘

2.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우세요. (25절)

“나는 이요 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with
생각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해서 보시니 나사로가 이미 죽어 무덤에 있는 지가 4일이나 지난 뒤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었지요.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with
결심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인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부활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말이에요. 부활 신앙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 부활 뿐 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얻은 구원의 생명이 현재 나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포함해요. 나사로같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듯이, 죄로 인해 죽었던 나의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예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죄로 인해 죽었던 저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

GOD'S TIME 4

넷째주

날짜: 2022.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요한복음 11:30-38 “슬퍼하시는 예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30.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31.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올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32.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뵈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33.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34.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35.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36.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37.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던 말ियो?"
38.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비통: 무척 슬퍼서
마음이 아픔

with
관찰

1.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32절)

- ① 마리아 ② 사라 ③ 엘리사벳 ④ 리브가

2. 예수님은 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어떠하여 괴로워하셨나요? (33절)



with
생각

마르다에 이어서 이번엔 마리아와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서 슬퍼 울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몹시 슬퍼 괴로워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로의 무덤으로 모시고 가며 말했어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왜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며 몹시 괴롭고 슬퍼 눈물을 흘리셨어요.

with
결심

마르다도 마리아도, 함께 따라온 많은 유대인들도 나사로를 고쳐주시지 않은 예수님을 보고 슬퍼하며 울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몹시 괴롭고 슬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생명과 부활을 알려 주셨지만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지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친히 부활과 생명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는 내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을 슬프시게 하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로 결단해요.

with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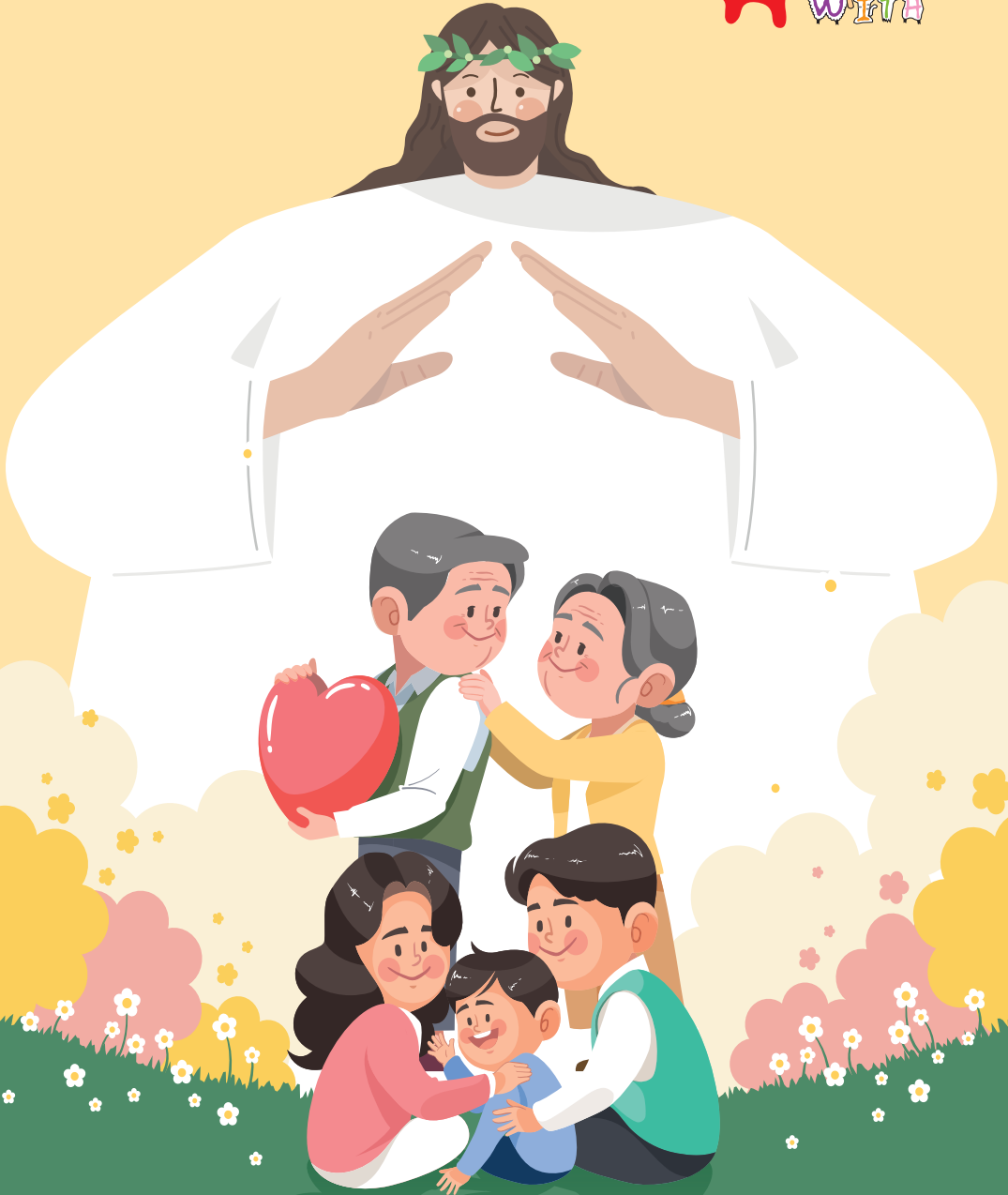
한줄 기도 :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 :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 창세기 1장 27절 -



5월 다섯째주
2022년 5월 29일~6월 4일



Memory time



지음 받은 은혜

다섯째주

♥ 주제 : 다시 가정이라는 꿈을 꾸라

♥ 암송구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 창세기 1:27

♥ 오늘의 주제 지음 받은 은혜 ▷ 창세기 1:27-28
나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졌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하나님께서 무엇대로 사람을 창조 하셨나요? (27절)
- ②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셨나요? (27절)
- ③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무엇을 주셨나요? (28절)
- ④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무엇 하라고 하셨나요? (28절)
- ⑤ 하나님은 누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나요? 내안에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는지 나누어 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친구들은 가족 중 누구와 가장 많이 닮았나요? 눈, 코, 입 등 외모가 닮았을 수도 있고 성격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혹은 먹는 음식이나 사소한 습관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지요.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닮았어요. 성경도 우리가 누구와 닮았다고 이야기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되었어요.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동물과 식물 등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는 역할을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게 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친구들, 나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진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 주변을 둘러보아요. 작은 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보살핀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탁대로 세상을 아름답게 꾸려나가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토론하기

Q1.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까요?
함께 나누어보세요.

Pray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꾸어 나가게 해 주세요.

GOD'S 다섯째주 TIME 1

날짜: 2022.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요한복음 11:39-45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39.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40.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41.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42.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43.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44.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45.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나흘: 4일



with
관찰

1. 본문을 읽고 빈칸을 채워 넣으세요. (43절)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야, ’ 하고 외치시니.

with
생각

예수님이 무덤을 막은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니 마르다가 죽은지 4일이 지나 냄새가 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셨고,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이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with
결심

마르다는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지만 정말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시니 냄새가 많이 난다고 대답했던 것이예요. 예수님께서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셨지요.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 깊이 예수님을 믿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

GOD'S TIME 2

다섯째주

날짜: 2022.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요한복음 11:46-57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사람들.”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46.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47.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48.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49.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오.
50.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소."
51.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52.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53. 그들은 그 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54.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예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55.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56.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 뜰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57.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 달라는 명령을 내려 두었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약탈: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음

유익: 이롭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음

with
관찰

1.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소.” 이것은 누가 한 말인가요? (50-51절)

□ □ □

2.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자 예수님은 어디에서 지내셨나요? (54절)

□ □ □ □

with
생각

나사로의 부활을 본 몇몇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그 일을 알렸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속 기적을 보여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왕으로 세우게 되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어떻게 할지 의논하였어요. 그 중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고,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 하였어요.

with
결심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실수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죄악된 행동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길로 사용하셨어요. 때로 예수님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도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구원의 길로 만드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예수님을 따라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 구원의 길을 만드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

GOD'S TIME 3 다섯째주

날짜: 2022.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요한복음 12:1-11 “예수님의 발을 닦은 마리아.”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유월절 **옛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 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에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2.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여 있었다.
3. 그 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4.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롯 유다가 말하였다.
5.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6.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7.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8.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9.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물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10.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11.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옛새: 6일

시중: 옆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하는 일

장사: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 장례



with
관찰

1.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여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3절)

2. 예수를 넘겨줄 사람으로, 마리아가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였다고 비난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4~5절)

with
생각

유월절 6일 전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다니에 가셨어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때 마리아가 아주 귀한(당시 노동자 1년 임금의 값 어치에 해당하는) 나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가 귀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비난하였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할 것을 쓴 것이니 그대로 두라고 하시며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with
결심

마리아는 예수님께 아주 값지고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을 보였어요. 가롯 유다는 자신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제자였지요. 그는 제자 모두가 함께 쓰는 돈자루를 맡아서 관리할 정도로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헌신의 방향은 달랐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이었지만, 한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겉으로 그럴 듯하게 보이려하는 헌신이었어요. 나는 어떠한 제자가 되고 싶나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GOD'S 다섯째주 TIME 4

날짜 : 2022.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요한복음 12:12-19 “호산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2. 다음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13.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14.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15. “시온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네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16.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17.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18.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19.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호산나: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는 뜻의 히브리어

회상: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



with
관찰

1.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많은 무리가 뭐라고 외쳤나요?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우세요. (13절)

“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에게 복이 있기를!”

with
생각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 무가지를 꺾어 들고 맞이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하고 예수님을 향해 외치며 찬양했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with
결심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크고 아름다운 말이나 마차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고, 대단한 왕의 모습을 갖추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섬기기 위해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섬김에 감사하는 내가 되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랑과 희생의 섬김을 보여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

Morning Time

가족과 함께하는

1. 잠들어 있는 친구의 팔다리를 가볍게 마사지하며 깨워주세요.
2. 친구가 어느 정도 잠에서 깨고 나면 다음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3. 말씀을 다 읽은 뒤, 친구를 포근하게 안아주며 이야기해주세요.



말씀 <시편 46편 1-5절, 새번역>

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2.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 속으로 빠져 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3.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셀라)
4.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5.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 주신다

사랑하는 OO(아)야, 잘 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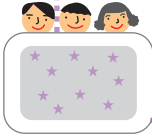
오늘 함께 읽은 시편 46편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앗수르의 산헤립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지은 시야. 강력한 적군들의 공격에 의해서 마치 산과 바다가 흔들리듯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 시인은 피난처와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어.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해보면 어떨까? 5절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매일 매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거야. 자 함께 기도 하자.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보면 우리를 무섭게 하고, 흔들어 놓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피난처 되시고, 힘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과 함께하는

1. 친구가 잠을 청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세요.
2. 친구에게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봐주세요.
3. 자리에 누워서, 친구에게 찬양을 들려/읽어 주세요.
4. 친구를 꼭 안아주며 기도해주세요.



찬양 <예수는 그리스도시니>

- 파이디온 선교회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리라
나의 예수 나의 구원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 이름의 능력 주노라
나의 예수 나의 부요함
예수는 그리스도시니
영원한 생명 값없이 받았으니
그 이름을 기쁘게 전하리
온 세상 땅 끝까지
그 이름 전하리
예수는 그리스도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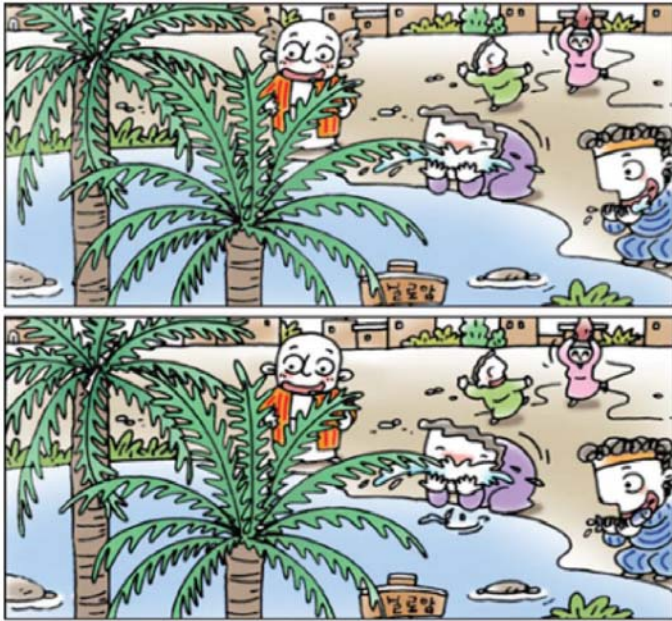
사랑하는 OO(아)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쉬지 않으셨어.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셨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길 소망해. 그리고 우리가 받은 생명의 구원을 이웃에게, 친구에게 전하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OO(이)와 우리 가족이 되면 좋겠다. 자 함께 기도하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보여 주신 큰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날마다 우리의 이웃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그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FUN FUN PLAY

다른 그림 찾기

두 그림을 비교하여 다른 부분들을 찾고, 성경 퀴즈를 풀어보아요!



1. 예수님을 믿는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셨는데 이 생수의 강은 무엇을 가리키나요?(7:37~39)

- ①영생 ②성령 ③말씀 ④기쁨

2. 예수님께서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 중에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에서 ()에 들어갈 말은?(8:7)

- ①죄 ②사랑 ③율법 ④가족

3. '실로암'의 뜻은 무엇인가요?(9:7)

- ①보냄을 받음 ②일어나라 ③열려라 ④가라

정답은 74p에서 찾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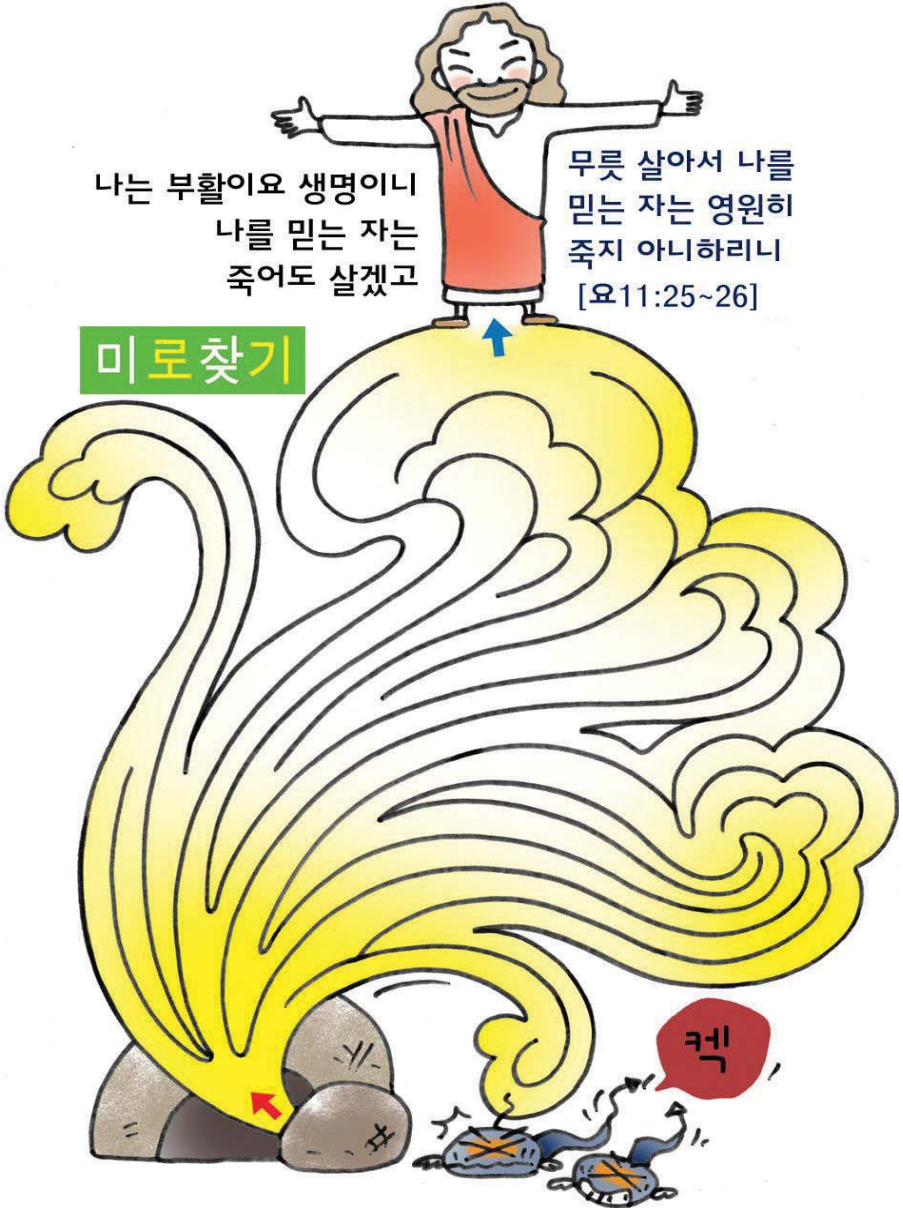
미로 찾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향해 미로를 찾아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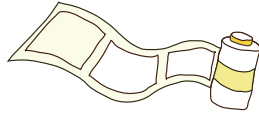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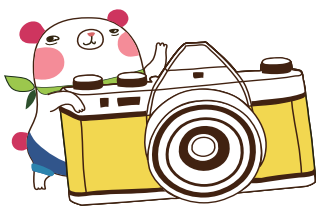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11:25~26]

미로찾기



정답은 76p에서 찾아 보세요!



위드 PHOTO

초등1부



3-3 임예준

4-13 이지아



4-2 류온유

초등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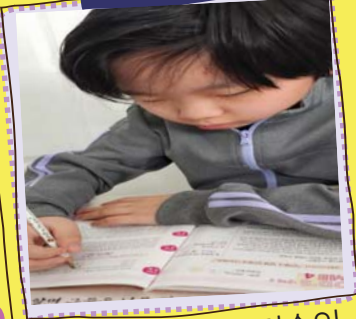
4-2 최윤희

초등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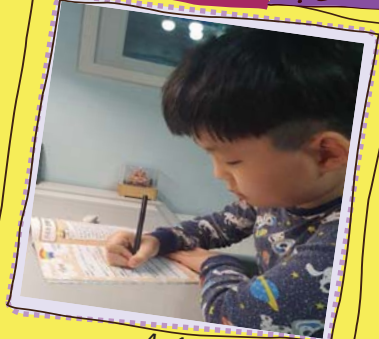
3-16 강래아

초등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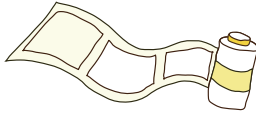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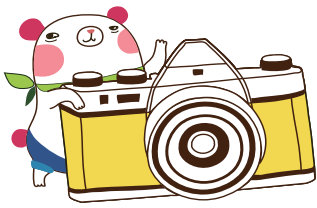


4-5 전수인

초등2부



4-12 표하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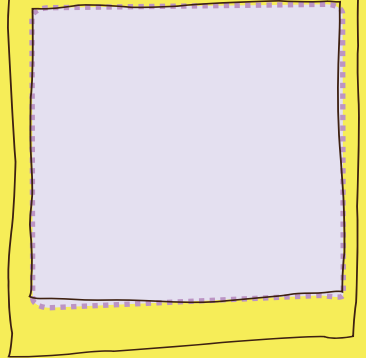
우익드 PHOTO

초등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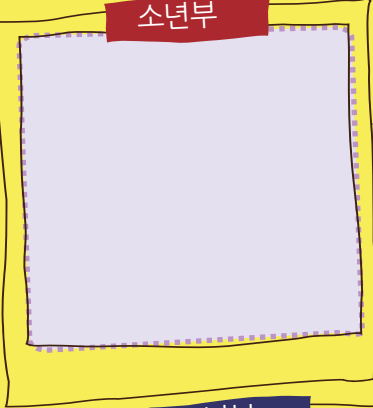


4-13 이지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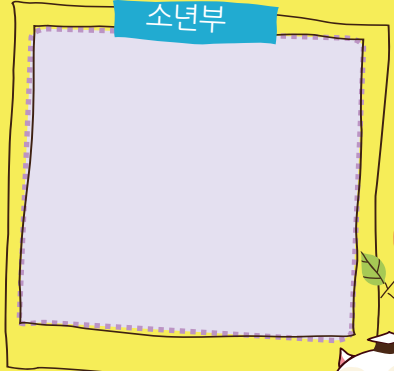
소년부



소년부



소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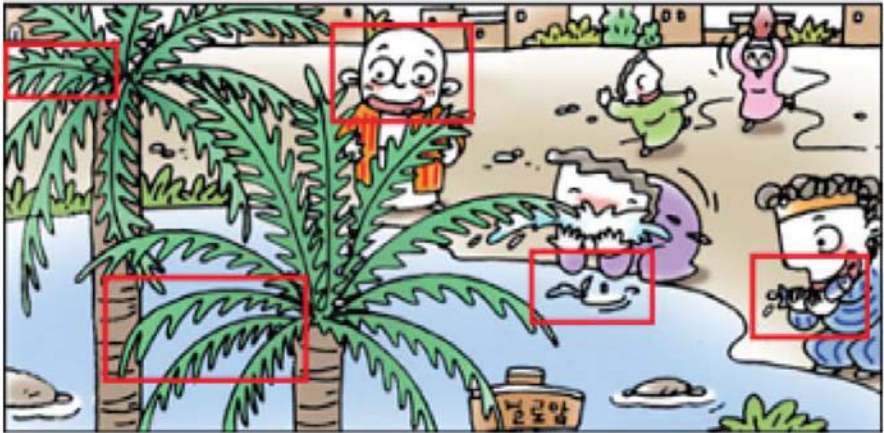


소년부



소년부





다른그림찾기 정답

5월 초등2부 Q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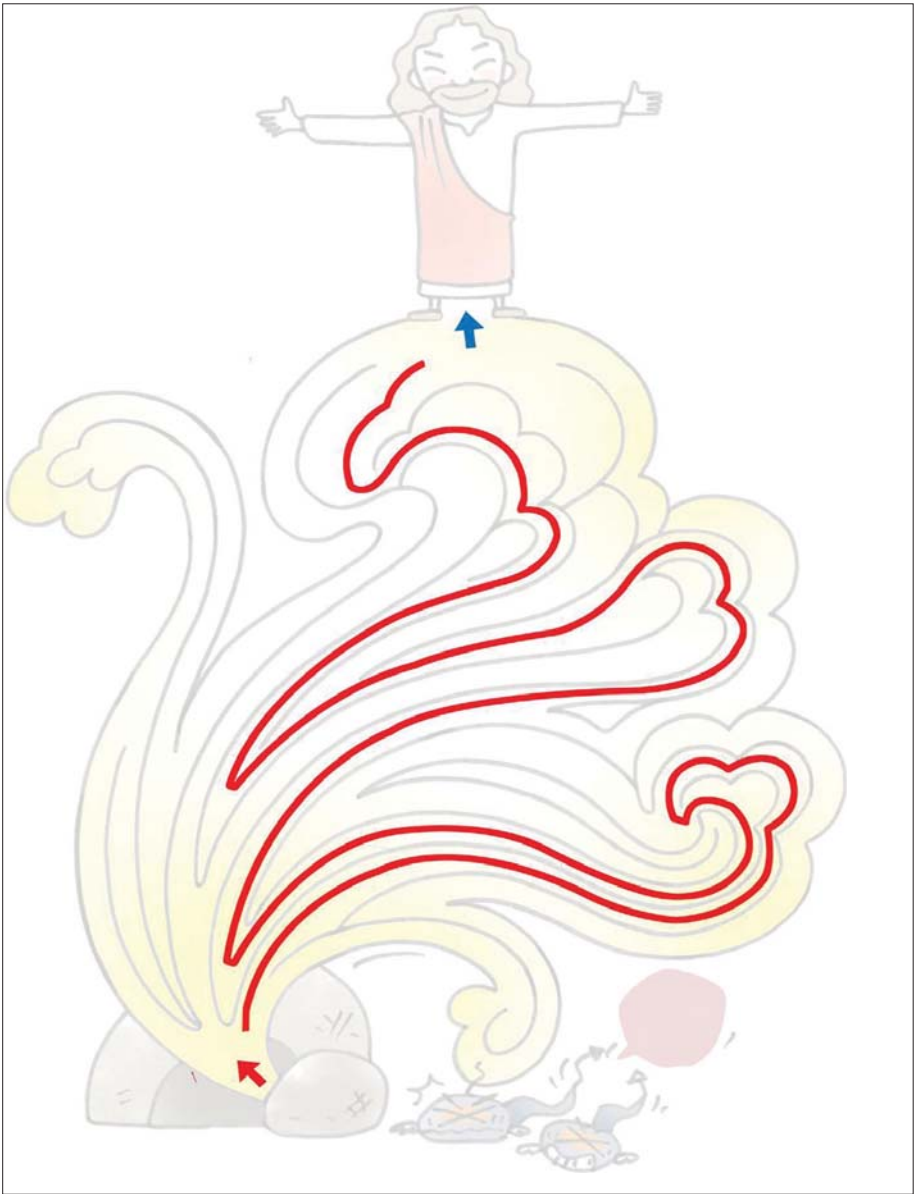
STICKER

부 학년 반

이름 :



GOD'S TIME	1	2	3	4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미로찾기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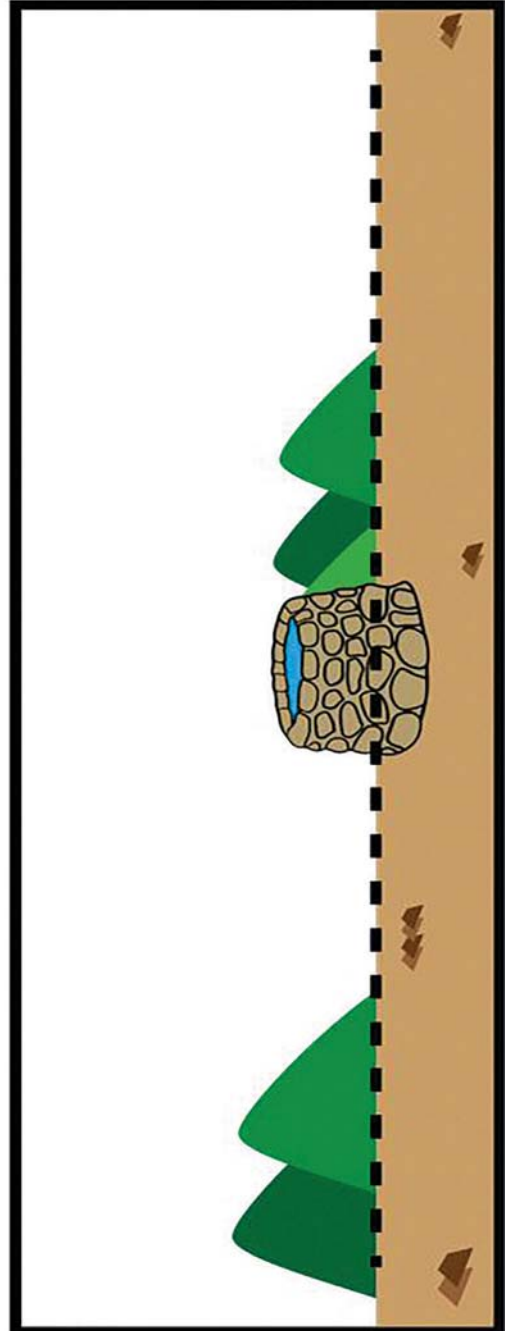
[하나님]



[이스마엘과 하갈]



[배경]



믿음의 가정 '규칙 세우기'

월 _____ □

화 _____ □

수 _____ □

목 _____ □

금 _____ □

